2023년도 제1차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 의 명 : 2023년도 제1차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 일 시 : 2023. 2. 15. (수) 11:00

○ 장 소 : 중랑구의회 제2소회의실

○ 안 건

- 의원 공무국외출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2023년 제1차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11시00분)

(위촉장 수여 및 의장, 위원 인사말씀 후)

○ ○○○ 간사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은 중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4조에 따라 민간위원님 중에 호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으로 위원님들 중에 연장자이신 △△△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은 △△△입니다.

오늘 심사에 앞서서 심사위원회를 주재해 주실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중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4조에 따라 민간위원님 중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으로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지금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위원 △△△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호선에 의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지금 보면 전체적인 여러 분야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은 어느 분보다도 우리 △△△님이 좀 많은 경험을 갖고 계

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님이 위원장으로 어떠신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임시위원장 △△△ △△△님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없을까요?

○ 임시위원장 △△△ △△△님을 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는 위원장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 ○○○ 간사 △△△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임시위원장, △△△ 위원장과 교대)

○ 위원장 △△△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자리에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중책을 맡겨주셔서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간사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 위원장님의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네, 그러면 부위원장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을 대리할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민간위원님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또는 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간사 부위원장님도 위원장님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구요.

○ △△△ 위원 △△△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업무에 오래 일을 하셨고 그러셨으니까 보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 위원장 △△△ 네, 지금 △△△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 계신가요?

추천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저도 구정에 굉장히 경력이 많으신 분이 부위원장이 되니까 좀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개회)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8조에 따라서 '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로부터 2023년도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 간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금일 심사대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하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건은 지난 2월 14일 개최된 중랑구의회 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며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가 제출되어 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사항은 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가와 기관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와 기간의 적정성 등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장목적은 해외 선진행정시스템 및 우수정책사례 경험을 통한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공무출장은 2023년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7박 9일이며, 중랑구의회 의원 전원 참여할 예정입니다.

출장경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1인당 400만 원으로 총 6,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출장지는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로토루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방문기관과 출장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해외 선진도시 입법기관 방문과 의회운영시스템을 상호 교류하고 우리 구의회에 접목할 계획이며, 장애인 복지시설 및 어르신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우리 구 복지사업에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문화시설 및 거리조성시찰, 우수사례 수집을 통해 장미공원, 망우역사공원, 특화거리 조성 등 우리 구 관광인프라 확충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국외출장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간사님이 자세하게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사위원들께서는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질의할 사항이나 또는 의문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위원 네, △△△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에 조선의원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열일곱 분 중에?

조선의원님 많으시죠?

대다수 조선의원님이시죠?

○ ○○○ 간사 네, 열한분이십니다. 조선의원님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 △△△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보냐면 제가 그 전에 뉴질랜드하고 호주 쪽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지금 보면 중랑구의회 의원님들, 특히 조선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의정활동에 상당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복지 분야가 상당히 다른 데보다 남다른데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아마 의정활동 하시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에 국외연수일정을 잡으시면서, 장소를 잡으시면서 좀 잘 잡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현지 재해재난 관련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호주 쪽에서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그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이렇게 딱 들어있어서 상당히 짜임새 있게 고생해서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 감사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기획과정에서부터 양당의 대표님을 모시고 구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그런 일정과 국가선정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전부터 의원님들 간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각자 의원님이 벤치마킹이나 혹은 가고 싶은 분야, 그런 분야까지 다 섭렵을 해서, 물론 일정 자체가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커다란 틀은 의원님들 참여하에 결정된 것임을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장기간은 확정이 돼 있는 거죠?

○ ○○○ 감사 확정됐습니다.

7박 9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 7박 9일로.

○ ○○○ 감사 좀 이것저것 지적을 해 주시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이 가셔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시고 또 나름대로 지역구민들한테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실 거 같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출장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번 국외 출장이 적정한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 △△△ 위원 다른 곳에 비해 중랑구 예산은 어떤가요?

○ ○○○ 간사 약간 의회별로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편성한 1인 400만 원 예산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한 중간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자체를 저희가 하고 싶다고 크게 넓게 잡을 수도 있고 한 4가지 예산항목 자체가 의회에서 편성할 수 있는 총액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인상률도 정부에서 내시해 주는 범위 안에서만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더 선진화된 곳을 시찰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의해서 자비부담을 감수하고도 이 2개 국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019년까지 국외연수를 갔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가는 국외연수입니다.

그리고 9대 개원 이후에 처음 가는 국외연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기획과정에서부터 참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저희 사무국 쪽에 제안도 해 주시고 하셔서 역대 어느 때보다 더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공무국외연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뭐 예전에는 의원님들이 연수 그런 거를 빌미로 외유로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출장경비는 어떻게 산출했나요?

○ ○○○ 간사 저희들이 경비 부분은 「지방공무원법」하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규정대로 산출을 한 금액입니다.

규정대로 산출을 해서 나온 게 4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회의자료에 있다시피 나왔고요.

○ △△△ 위원 지급규정에 따르면 의원님들은 400만원이다?

○ ○○○ 간사 지금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르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여비 등급이 일반 의원님들과 달라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보다 상향할 수 있으나 두 분이 차이를 뒤선 안 된다 하셔서 같은 금액 기준으로 산출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 위원 네, 간사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는 출장을 갔다 오시고 나서는 결과보고를 받는 자리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산을 들여서 다녀오는 것인데 주민들에게 라든지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 간사 네, 갔다 오고 나서 60일 이내에 개최되는 임시회 혹은 정례회 상임위나 본회의에 결과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출장을 다녀온 의원님들께서 직접 작성을 하셔서 정례회 혹은 상임위나 본회의 때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요.

○ △△△ 위원 주민의 세금으로 가는 출장이니 만큼 꼭 주민들 앞에서 다녀온 결과라든지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간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네, 아마 효율적인 의정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중랑구에 잘 접목을 하고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정책사업에도 잘 연관이 되는 그런 벤치마킹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게 외유성이 아니고 정말 벤치마킹하면서 공부하러 가시는 거니까 굉장히 부담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떠나시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 △△△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외출장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구정에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 각각의 역할분담과 출장 결과보고가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이러한 점에 대해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구의원 님 중 누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 위원 다녀오고 나서 그냥 잘 배우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내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결과보고서도 형식적으로다가 현황이나 안내문 보고 작성하고 끝내면 출장에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요.

○ △△△ 위원 네, 금번 국외출장자 △△△ 입니다.

이번 출장 보고서는 이전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기행문 같은 현황나열이나 소감 형식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가서 보고온 우수한 정책사례라던가 벤치마킹할 부분을 결과보고서에 담아내고, 우리 구에 접목하고 도입할 우수한 부분을 정리해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법제화하고 구청 집행부에 전달할 부분은 전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 위원 △△△입니다.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심사계획서에 보면 출장 경비가 항공료, 숙박비, 식비, 일비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항공료, 숙박비, 식비 이런것은 무엇인 지 이해가 되는데, 일비는 어떨 때 쓰는 비용인가요?

○ ○○○ 간사 네, 우리가 출장지 현장에 갔을 때 항공료나 숙박, 식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현지에서 통행료, 입장요금, 교통비, 현지 통신비 등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경비에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규정에 국가의 등급 출장자의 등급 별로 지급액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이번 출장의 일비를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 이 외에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가요?

○ △△△ 위원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 네, 말씀해 주십시오.

○ △△△ 위원 네, △△△ 위원입니다.

당사자나 다름없는 저와 또 우리 존경하는 △△△ 위원님이 이 심사위원회에 임명직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왜냐면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으로 왔단 말입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가 잘 경청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우리 의원님들께 그 고견을 전달하고 그런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산이라는 게 결국 예산을 통해서 정책을 지원해 주시는 주민들의 뜻이 정말 왜곡되지 않도록 계획한 대로, 아니면 계획한 이상으로 저희가 아주 엄중한 마음으로 정말 내실 있는 국외출장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정말 우리의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잘 경청하고 있고요,

어떤 결과를 주시든 간에 저희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고견들을 또 저희가 의원님들과 공유해서 하여튼 잘 더 열심히 하는 저희 9대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전달하겠습니다.

○ △△△ 위원 네,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머, 요즘 매스컴, 뉴스, 인터넷을 보면 국회의원, 지방의원 들이 해외 출장을 가서 출장 본래 뜻에 안 맞는 행동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주민들도 의원들이 해외에 나간다 이러면 특별히 주시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중랑구의원님들은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어요.

△△△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의 예산을 들여 나가는 해외 출장이니 만큼 더 책임감을 갖고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은 중랑구의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은 특별히 없으신 거 같은데 하여튼 효율적인 그런 의정활동을 위해서 뉴질랜드하고 호주의 그런 선진행정을 직접 잘 체험하시고 중랑구 정책사업에 잘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공무 국외출장이 출장이라는 이름 그대로 목적 없이 쉬거나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공무 출장이라는 말대로 선진지역의 우수한 시스템을 잘 시찰하셔서 우리 중랑구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2분 산회)